환경교육

푸른 숲을 만드는 동물 (국립공원 동물학자)

활동장소	북한산둘레길 및 자연관찰로
소요시간	80분
참가대상	중학생
참가인원	20명 내외
작 성 자	북한산 자연환경해설사

활동목표	• 야생동물의 흔적을 찾아 어떤 동물인지 추리한다. • 각 동물의 특징을 파악한다. • 멸종위기종에 대해 알고 생물이 다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본다.
준비물	• 동물 흔적(배설물, 깃털, 매미허물, 뱀허물쌍살벌집, 석고발자국 등), 미션 답안 작성용 서류받침과 필기구, 자, 무인카메라
유의사항	• 동물 흔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생각열기)	• **활동 전** – 활동방법 및 활동 시 주의사항	10분
전개 (놀이 및 활동)	• **동물의 흔적으로 어떤 동물인지 추리** – 모둠별 동물 흔적 찾기 – 해설을 들으며 작성한 야장 정답 맞추기 • **무인카메라에 찍인 모습을 보며 느낌나누기**	55분
마무리 (생각나누기)	• **느낌나누기 및 만족도 조사**	15분

시나리오	활동 전 오늘은 국립공원 동물학자가 되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활동방법과 안내사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오늘 프로그램은 동물들의 흔적을 찾아 주변에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는지 유추해 미션지에 적어보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활동하기 전에 주의할 점이 있어요! 활동을 할 때 찾은 동물의 흔적은 다른 모둠도 찾아서 유추할 수 있도록 흔적을 숨겨두거나, 망가뜨리면 안돼요! 이거 하나 유의하면서 찾아보도록 해요~ 잘 할 수 있겠죠?(대답듣기) 동물의 흔적으로 어떤 동물인지 추리 우리는 국립공원에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요! 동물은 식물처럼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야행성인 동물들이 있다면 낮에 그 동물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 듣기) 네! 여러분들 명탐정 코난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나요? 거기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꼭 증거들을 찾아 범인을 찾아내죠. 그와 비슷하게 동물들이 살고 있는 흔적을 찾아 그 흔적을 가지고 어떤 동물이 살고 있는지 추리를 하면 됩니다. 예시를 몇 개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고발자국을 보여준다) 모든 동물들은 비슷하지만 다른 발자국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동물이 지나가면서 발자국이 남아있다면, 그 발자국의 모양을 보고 추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개과 동물들은 언제나 발톱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발자국에 발톱자국이 있고 고양이과 동물은 발톱을 자유자재로 숨겼다 꺼낼 수 있기 때문에 발자국이 찍히지 않아요. 하나 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다람쥐 식흔을 꺼낸다) 바로 이 흔적은 다람쥐가 솔방울을 먹다 남은 흔적입니다. 이런 흔적을 식흔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아 국립공원에 다람쥐가 살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외에도 배설물, 새의 경우에는 깃털, 매미의 경우에는 매미허물, 그리고 벌과 같은 친구들은 벌집의 모양을 보고 어떤 벌들이 서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동물의 흔적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30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분 후에 이 자리로 모일게요! 시~작!! (30분 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미션지를 채워보았는데요. 다 끝나셨나

요?(이야기 듣기) 네 모두 잘 찾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미션지[야장] 정답 맞추기)

무인카메라에 찍힌 모습을 보며 느낌나누기

우리는 흔적으로도 누가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지만, 확실한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이 계속 쳐다보지 않아도 동물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깜깜한 저녁에도 동물을 볼 수 있지요. 바로 무인카메라입니다. 무인카메라는 야행성인 동물도 볼 수 있고, 동물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단점은 무인카메라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동물들이 자주 보일 수 있는 장소를 찾아 잘 설치해야 합니다.

오늘 활동을 하기 전에 제가 무인카메라 하나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눈치 채셨나요? 우리가 활동 하는 모습이 무인카메라에 어떻게 찍혔을까 확인해볼까요?(무인카메라 확인하기)

마무리

오늘 북한산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 동물학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다들 어떠셨나요? 동물은 포유류, 곤충, 양서류, 조류를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동물은 생물 피라미드에서 최하단인 식물을 제외한 모든 것이에요. 그만큼 자기의 자리에서 모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지요. 푸른 숲을 만드는 동물들은 아주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이런 동물들을 연구하고 복원하는 국립공원 동물학자! 너무 매력적인 직업이지 않나요? 오늘 여러분들도 국립공원 녹색직업에 한 걸음 가까지 다가갈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이 끝난 후 만족도 조사지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감도 언제든 환영이니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지금까지 북한산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000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